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3일 목요일 음 12월 11일 (3월)

목요일론

기상정보

흐리고 눈·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와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C, 낮 최고기온은 5-8°C로 전망된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2 columns: 오전 (Morning) and 오후 (Afternoon).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Sunrise) and 해질녘 (Sunset).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지수 보통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3/7°C, 모레 구름 많음 3/10°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지뢰 100개 찾아낸 대형 쥐의 죽음

캄보디아서 지뢰탐지훈련 받아

캄보디아에서 100개가 넘는 지뢰를 찾아낸 아프리카도깨비쥐의 죽음에 유럽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용감한 동물상을 받은 마가와.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 시간) 런던발로 '마가와'라는 이름이 붙은 아프리카도깨비쥐의 죽음을 전했다.

훈련을 받은 마가와와 지난 2016년 캄보디아에 배치됐다.

2013년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마가와와 벨기에의 비정부기구 'APOPO(대인지뢰탐지개발기구)'의 훈련을 받았다.

이후 마가와와는 100개 이상의 지뢰를 발견했다.

NYT는 테니스코트만한 넓이의 땅에서 지뢰를 탐지할 경우 사람은 급속탐지기로 나을 정도가 걸리지 만, 마가와 같은 설치류는 30분이면 탐지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PDSA는 지난 2020년 마가와에 용감한 동물에 수여하는 금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후 마가와와는 지난해 현장에서 은퇴했다.

APOPO는 성명을 통해 "마가와와는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탐지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앞으로도 계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호 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새해 내 집 마련 계획은 미리미리

특성으로 인해 본인의 자금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도입하면서 대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가구는 DSR 규제(은행권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6억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4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전액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대출가능 금액이 1억 4000만원으로 1억 원 줄어든다.

더 1억 원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거비가 상승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연 초부터 반값지 않은 소식도 담론을 시작했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사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진 탓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분위기는 예전만 같지 않은 듯하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새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중 하나는 내집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은 고가성, 내구성, 많은 거래비용(중개수수료·등기비용·각종세금 등)이 요구되는 재화라는

열린마당

제주도의 환경오염 대응



박 동 우 시민

썩지 않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 오염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대응과 정부의 화이트 바이오 산업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제주도 전지역을 환경특구로 지정해 도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석유화학 소재인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생수병 등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생분해성수지(PLA)라고 하는 식물에서 포도당을 추출해 압축한 바이오 원료의 사용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제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소형 마트에서 사용하는 육류, 수산물 등을 포장

하는 트레이, 음식집 등에서 사용하는 물컵, 음식배달용 일회용 포장용기,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커피컵, 빨대 등이 있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손봉투와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무지, 김치 포장용기, 수산물 운반 포장용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생수팩트병 등도 해당된다.

아울러 제주특산물인 한라봉, 천혜향을 포장할 때 쓰이는 완충용실망과 농업용 멀칭비닐은 잡초생육억제, 수분조절, 지온상승, 수확량 증대 등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자재이다. 그러나 흙 속에 묻혀 있거나 토양 표면에 영겨붙은 비닐은 수확 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제주지역 육상과 해상에 널려있는 환경오염 원인인 플라스틱 소재를 하루속히 바이오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제주도가 세계 친환경 정책의 앞장서는 정책을 구현해 자부심 있는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에 대항할 안전한 방패, 백신접종



양 영 속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한 지 2년이 넘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직후 사람들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감염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에 그쳤다. 이에 각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데에 돌입했고,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1차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현재 3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

백신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는 백신 접종 이후 확진자 발생의 세부적 추이를 간과한 의견이다. 작년 요양 시설에 대한 2차 접종이 마무리된 5월 이후 집단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백신이 체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백신은 접종 후

4-5개월이 지나면 신체 내 작용이 미미해지므로 돌파감염의 우려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신은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사실이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3차 접종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부스터 샷'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에도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체내 항체 생성률이 훨씬 증가한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국면은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의 변이와 확산은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3차 접종'이라는 방패를 두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소망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조상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1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제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20㏔(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사용효과: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토양 이끼 제거, 당도·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사용시기: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탱이 감글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영인 H·P 010-2633-5349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